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이준석 후보 허위 사실 유포 인용 보도 고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단장 : 김현)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제3차 후보자 TV토론회에서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제3차 정치분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수준의 혐오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그 가족은 물론, 국민들을 겨냥한 모욕적이고 혐오적인 내용으로,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하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는 언론의 기본 책무인 정확한 사실 확인과 공정한 보도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다.

특히, 윤석열의 과면에 따르는 조기 대선이라는 중대한 선거 국면에서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허위보도는 유권자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대응단은 해당 보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언론사 기자 9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동일한 유형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가짜뉴스대응단은 “언론은 선거 기간 중 특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한 뒤 보도해야 한다” 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